

# 잔 다르크 구하기: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1부〉 공연평

조 은 경

## 1.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1부〉가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남육현 연출)에 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연되었다. 이 극단은 파격적인 해석을 자제하고 비교적 원작을 충실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헨리 6세 제1부〉 공연은 특히 잔 다르크 해석에 있어서 원작과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1)</sup> 뒷벽의 중앙에는 성벽의 출입문처럼 생긴 둥근 출입구가 나 있고 은빛 쇠사슬로 된 주련이 드리워져 있다. 쇠사슬은 출입구를 가리는 역할 외에도 잔 다르크의 죽음과 연관되어 쓰이게 된다. 무대의 허공에는 붉은 장미꽃과 흰 장미꽃이 섞인 다발이 원추형의 녹색 모형 안에 담겨 매달려 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디자인되어 불안을 자아내는 이 모형은 전쟁 종식과 결혼으로 얻어진 평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잉글랜드의 상황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흔히 ‘장미 전쟁 4부작’으로 불리는 4편의 역사극『헨리 6세』 3부작과 『에드워드 4세』(Edward IV) 중의 처음 작품인 『헨리 6세 제1부』(*The First Part of King Henry VI*)는 헨리 5세의 서거에서부터 헨리 6세와 마거릿(Margaret) 공주의 결혼에 이르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12년 동안의 긴 시간을 아우른다. 프랑스 내의 잉글랜드의 영도들이 다시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있는 가운데, 어린 헨리 6세가 왕위에 앉아 있는 불안한 시기를 틈타 잉글랜드의 귀족들은 내분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잉글랜드의 이상적 질서를 체화하는 인물은 텔버트(Talbot) 장군이다. 잉글랜드에 대적하는 찰스(Charles) 황태자 곁에는 성처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잔 다르크가 있다. 원작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전쟁에서 텔버트와 잔을 각각의 진영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텔버트를 이상적인 군인으로 찬미하는 한편 잔 다르크를 깎아내리는 작업에 몰두한

---

1) 그녀는 『헨리 6세 제1부』와 『연대기』에서 ‘조운 드 푸셀’(Joan de Pucelle) 혹은 ‘조운 오브 아크’(Joan of Arc), ‘조운 오브 에어’(Joan of Aire)라고 지칭되지만,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프랑스식 발음대로 ‘잔 다르크’(Jeanne d’Arc)라고 불린다. 이 글에서도 프랑스의 다른 등장 인물들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하지만 조운은 ‘잔 다르크’라고 표기하였다.

다.<sup>2)</sup> 프랑스를 적국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남아 있었던 당시의 영국인들과는 달리 국내 관객들은 (프랑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오를레앙의 성녀녀’라는, 잔 다르크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이 연출에서 큰 중요성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주어진 비중이 극의 전체와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잔 다르크 구해 내기 작업이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원작 희곡과의 비교를 통해 짚어 보고자 한다.

## 2.

셰익스피어 원작에서의 잔은 올리언즈 전투가 대승을 거둔 뒤 찰스로부터 ‘성녀’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후속 전투들에서 프랑스가 연이어 패배하자 악마와 정령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마녀’의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런가 하면, 그녀는 잉글랜드인들의 목소리에 의하여 황태자의 정부(mistress)로 회자되고, 포로로 잡힌 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녀는 임신했다는 고백을 하여 ‘창녀’로까지 규정된다. 셰익스피어의 관객은 질서를 중시하는 “존재의 커다란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개념을 당연시하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관객이었다. 따라서 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반역이나 모반, 신분상승의 욕망 등은 강력하게 문제시되었고, 연대기(chronicles)와 극작품에서는 종종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교훈적인 의도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헨리 6세 1부』가 잔 다르크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분출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올리언즈에서 자국 군대를 섬멸하였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복색을 하고, 천한 양치기 딸로 태어났으면서 단숨에 일국의 군대의 수장으로 발탁되는 등, 받아들이기 수 없을 정도로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 시리즈를 쓰면서 『연대기』(Chronicles) 중 라파엘 홀린셰드(Raphael Holinshed)가 집필한 부분에 드러난 잔 다르크에 대한 비방들을 많이 차용했다(Harrison 22). 홀린셰드는 특히 잔 다르크의 죽음과 관련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녀의 이단성과 성적인 방종을 그녀가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는 결론과 연결짓는다.

그러나 (하느님 맏소사!) 그녀[잔]는 과거에 악마에게 너무나도

2)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이러한 일방적인 폄훼에 대하여 『썬트 조운』(St. Joan)이라는 극작품으로 잔 다르크 일화를 다시 쓰기도 했다. 20세기 초 『헨리 6세 제1부』의 무대화에 있어서도 쇼운의 캐릭터에 약간의 모호함을 남겨 두거나 순진한 천사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Hampton-Reeves 19-20 참조).

사로잡혀 있던 나머지, 도저히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전 자신의 추행을 곧 다시 저지르면서(그러면서도 생을 최대한 연장할 방도를 찾으면서), (그러한 고백이 수치스러웠을 것이라는 하지만)자신이 창녀였으며,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서) 어린애를 가졌다고 고백하려 들지 않았다. 재판에서, 총독[리처드 요크]은 자비롭게도 그녀에게 아홉 달 간의 유예를 주었는데, 중국에 그녀는 (예전처럼 사악한 만큼 부정직하다는 것이 드러나, 여드레 후에 원래대로 돌아가 자신의 서약과 참회를 저버린 데 대하여 유죄임이 추가적인 확정판결로 내려져서) 세속 권력의 재량으로 넘어와 루안의 옛 저자거리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형이 집행되었는데, 여기는 현재 성 미카엘 교회가 있는 자리다. 그녀를 태운 재는 성벽 바깥에서 바람에 흩날려 갔다.

But herein (God help vs!) she fullie afore possest of the feend, not able to hold her in anie towardnesse of grace, falling straight waie into hir former abominations (and yet seeking to eetch out life as long as she might) stake not (though the shift were shamefull) to confess hir selfe a *strumpet*, and (vnmarried as she was) to be *with child*. For triall, the lord regents lenitie gaue hir nine moneths stay, at the end where of she (found herein as false as wicked in the rest, an eight daies after, vpon a further definitiue sentence declared against hir to be relapse and a renouncer of hir oth and repentance) was therevpon deliuered ouer to secuar power, and so executed by consumption of fire in the old market place at Rone, in the selfe same steed where now saint Michaels church stands: hir ashes afterward without the towne wals shaken into the wind. (105, 원문 강조)

위 기록은 악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참회하지 않는 잔의 부정함과 불경함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을 늦추어 주는 잉글랜드의 관대함에 대비하여 강조한다.<sup>3)</sup>

원작 『헨리 6세 1부』의 시선은 영국인의 것인 만큼, 잔 다르크가 경건하지 못하고 사술에 의지하는 이단자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5막 3장에서는 그녀가 애초부터 신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려 잉글랜드를 격파했다는 것이 암시되면서, 마녀로서 그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잔: (악령들 등장)

이렇게 빨리 생령으로 나타나 준 것은  
예전처럼 나를 부지런히 돕겠다는 증거로구나.

3) G. B. 해리스(Harrison)은 『연대기』를 인용하는 도중, 잔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비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힌다(26).

. . . . .  
 아, 너무 오래 대답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내 피를 먹여 주곤 했지만  
 지금은 팔다리를 하나 잘라서 주겠다  
 너희가 나를 기꺼이 도와 주는  
 더 나은 이득을 위해서.

JEAN.

*Enter Fiends.*

This speed and quick appearance argues proof  
 Of your accustom'd diligence to me.

. . . . .  
 O, hold me not with silence over-long!  
 Where I was wont to feed you with my blood,  
 I'll lop a member off and give it you  
 In earnest of a further benefit,  
 So you do condescend to help me now. (5.3.8-17)

위 대사는 그녀가 황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예지력과 올리언즈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한 무공이 사실 성모와 예수의 은총 때문이 아니라 “피의 의식”(blood-sacrifice; 5.3.20)과 같은 마법(witchcraft)으로써 가능하였음을 누설한다. 비록 그녀가 프랑스에 가지는 충성까지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술(邪術)로 간주된다. 즉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치녀였던 적이 없으며, 그녀를 불태워 죽이는 요크 공작(Duke of York)은 그녀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셈이 된다.<sup>4)</sup>

유라시아 버전에서 잔의 악마 소환 장면은 프랑스의 패배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등장한다. 이로써 잔이 올리언즈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사탄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 잔이 마법의 원을 그리며 악마 말파스에게 영혼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대사가 삽입되어 그녀의 애국심은 더욱 강조된다.

잔: 아, 이대로 가다간 저 잉글랜드의 악마 같은 독종 요크가 프랑스를 자기 발 밑에 짓밟고 말 것이다. 신이여, 어찌하여 저의 기도를 더 이상 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 자, 최후의 절망적 수단이다! 악마 말파스여, 내 주문에 응답하라. Grande Malphas! Piega le ginocchia per lei!  
 (반복) ...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겠다.

4) 이는 전쟁에서 이긴 쪽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황청이 그녀를 이단으로 판결함에 따라 내려진 처사인데, 극중에서는 이러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자,어서 말해 보거라! 무엇이냐? 내 영혼이냐? 좋다, 네가 원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 내가 잉글랜드 놈들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수정 대본 5.3.)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던 원작에서의 소극적인 악령들과 달리, 말파스가 데리고 나온 악령들은 잔의 주위를 어지럽게 돌며 피를 빨아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또한 말파스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잔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후 퇴장하자 악령들은 마치 그녀를 윤간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그녀의 갑옷을 벗겨내고 누더기 차림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물론 프랑스의 패전과 그녀가 포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는 동안, 잔은 잠시나마 신을 버리고 악마에게 의지하려고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악령들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마치 맥베스가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환영들로 인해 고통 받는 것처럼, 잔 다르크 역시 자신의 환영 속에서 악령들에게 피를 빨리는 동안 잉글랜드 군사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다. 결국 잔은 사술을 쓰려다가 실패하는 마녀가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않기로 악명 높은 악마인 말파스에게 속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수정된 대본은 잔을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욕망 충족이 아니라 ‘조국’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 악마와의 치명적인 거래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그려, 이와 그녀의 캐릭터에 일종의 숭고함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녀라는 혐의에서 잔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각색은 잔의 입으로 자신이 사실은 창



사진 1. 자신이 주술로 불러낸 악령들에 둘러싸인 잔(민지영 분). 2011.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녀와 다름없었음을 고백하는 5막 4장에서도 계속된다. 원작의 잔은 화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임신부로서의 ‘특권’(privilege)에 호소하기 위해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말한다.<sup>5)</sup> 그러나 그녀는 “사생아 따위는 살려둘 수 없다 / 더구나 찰스가 그 아비임이 분명하니까”(we will have no bastards live, / Especially since Charles must father it; 5.4.70-71)라는 워릭 백작(Earl of Warwick)의 말을 듣고, “내 애는 찰스의 자식이 아니다 / 내 사랑을 받은 자는 앨런션 공작이었으니까”(my child is none of his: / It was Alençon that enjoyed my love; 73-74)라고 말을 바꾼다. 이번에는 워릭가 “앨런션, 그 악명 높은 마키아벨리 같은 자! / 애는 천 개의 목숨을 가졌더라도 죽어야 한다”(Alençon, that notorious Machiavel! / It dies and if it had a thousand lives; 5.4.74-75)고 말하자, “찰스도 아니고 내가 말한 공작도 아니다 / 날 가진 것은 나폴리의 왕 레니에다”(‘Twas neither Charles, nor yet the Duke I named, / But Reinier, King of Naples, that prevail’d; 77-78)라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한다. 결국 방금 전에 “서녀(庶女) 잔 다르크는 / 어렸을 때부터 처녀로서 / 마음으로부터 정숙하고 티없이 깨끗하다”(misconceived Joan of Aire hath been / A virgin from her tender infancy / Chaste and immaculate in very thought; 5.4.49-51)고 주장하던 잔은 위에 언급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했음을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요크는 “너무 많은 것이다, 그녀가 죄를 돌릴 자들이”(There were so many—whom she may accuse; 81)라며 그녀를 확실하게 ‘창녀’(strumpet; 84)로 규정하고 조롱한다. 그렇지만 공연에서는 잔이 단지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하는 5막 4장의 59~64행만이 남겨져, 잔 다르크를 ‘창녀’로 깎아 내리는 작업이 약화되고, 실제로 그녀가 임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애매하게 처리된다.<sup>6)</sup> 이 장면에서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였다는 수치스러운 고백을 통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픈 인간적인 욕구만을 드러낸다.

잔 다르크가 화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면도 그녀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었다. 잔이 이 대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왕의 혈통임을 주장하는 위협 발언을 내뱉어, 요크가 “이것이 그녀의 천성이 어땠는지

5) 임신부가 사형 판결을 받을 경우 죄 없는 뱃속의 아기까지 사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로마법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Cairncross 123).

6) 남겨진 잔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Will nothing turn your unrelenting hearts? / Then, Joan, discover thine infirmity / That warranteth by law to be thy privilege: / I am with child, ye bloody homicides; / Murder not then the fruit within my womb, / Although ye hale me to a violent death.” (5.4.59-64)

를 말해 준다 / 사악하고 못돼 먹었으니 죽어 마땅하다”(This argues what her kind hath been, / Wicked and vile; and so her death concludes; 5.4.15-16)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원본에서는 아버지가 퇴장한 후 자신이 왕의 혈통이며 순수한 처녀로 신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프랑스 남자들과 동침하였다는 진술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이 대사 또한 ‘신의 선택을 받았다’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망상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상연하기에 따라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광기를 표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양치기: 잔, 그렇게 완고하게 굴지 말거라!  
 네가 내 살덩이 조각이며,  
 너를 위해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신께서도 아신다.  
 착한 잔, 부탁이니 나를 부정하지 말거라.  
 잔: 촌놈, 저리 꺼져! 너희들은 내 고귀한 혈통을 덮으려  
 고의로 이 자를 위증하게 만들었구나.

. . . . .  
 먼저 너희가 사형 선고한 게 누구인지 말해 주마.  
 양치기 시골뜨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을 타고난 자로서,  
 고결하고 성스러우며,  
 지상에서 탁월한 기적을 발휘하기 위해  
 천상의 은총이라는 영감으로써  
 높은 곳에서 선택된 자다.

SHEPHERD. Fie, Joan, that thou wilt be so obstacle!  
 God knows thou art a collop of my flesh;  
 And for thy sake have I shed many a tear.  
 Deny me not, I prithee, gentle Joan.  
 PUCELLE. Peasant, avaunt! You had suborn'd this man  
 Of purpose to obscure my noble birth.

. . . . .  
 First let me tell you whom you have condemn'd:  
 Not one begotten of a shepherd swain,  
 But issued from the progeny of kings;  
 Virtuous and holy, chosen from above,  
 By inspiration of celestial grace,  
 To work exceeding miracles on earth. (5.4.17-41)

상연 중에는 잔 다르크 역을 맡은 배우 민지영의 표정과 시선을 통하여, 그녀의 감정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되어 전달되었다. 만취한 상태로 등장한 양치기는 결박된 잔의 주위를 돌며 때로는 딸에게, 때로는 군사들에게 말을 건다. 잔은 적군들이 양치기 쪽을 보느라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때에는 죽음 직전에 아버지를 만난 상황에서 겪는 극심한 감정의 동요를 표현하지만, 요크 등 적장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본다. 이로써 잔의 위 대사는 그대로이지만 그녀의 심리는 (아마도) 적들에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원하지 않아 아버지와 '상봉'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3.

위에서 언급된 수정 및 각색은 잔 다르크라는 인물을 더 공감 가능한 인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잔 다르크의 최후를 그리는 마지막 장면은 작품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잔 다르크의 화형을 무대 밖에서 처리해 그녀를 철저히 승리자 잉글랜드의 영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셰익스피어와 달리 유라시아의 극은 화형 장면을 새로이 삽입했다. 그녀가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 술하게 들고 나던 뒷벽 출입구에 늘어뜨려져 있던 쇠사슬 주렴은 이제 그녀를 결박하는 족쇄로 쓰인다. 또한 3막 2장에서 잔의 손에 들려서 프랑스 군의 공격 신호로 쓰이던 횃불을 나타내던 붉은 조명은 잔의 발 밑에 쌓인 장작더미에 놓여 그를 태우는 죽음의 불길로 바뀐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그녀를 구하러 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잔 다르크의 비전이 무엇이었던, 그녀는 애초에 프랑스에 이용당하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녀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막 6장의 올리언즈의 승리 이후 찰스는 잔의 활약에 대한 보답으로 “왕관을 … 그녀와 나누어 쓰”(divide . . . crown with her; 1.6.18)고, “그녀가 죽으면 그 기념으로 그 유골을 … 프랑스의 왕과 왕비 앞을 받들고 나가게 하겠다”(Her ashes . . . / Transported shall be . . . / Before the kings and queens of France; 24-28)고 호언장담한다. “잔 다르크야말로 프랑스의 수호성자다”(Joan de Pucelle shall be France's saint; 1.6.29)와 같은 찰스의 찬사는 너무나 화려하고 거창해서 오히려 그 진실성이 의심될 정도이다. 역시나 바로 다음 2막 1장에서 올리언즈를 다시 빼앗기자 찰스는 잔에게 “거짓말쟁이 계집아, 이것이 너의 요술이나?”(Is this thy cunning, thou deceitful dame?; 50)라며 분노를 표출한다. 황태자는 “성모가 나를 돕는다”(Christ's Mother helps me; 1.2.107)는 그녀의 주장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그녀를 “누가 돕든지 간에”(whoe'er helps; 1.6.108) 상관 없이 전승을 위해 그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앨런선은 잔이 버건디 공작(Duke of Bur-





사진 2. 올리언즈 탈환 후 환호하는 잔(민지영 분)과 찰스 왕(지윤재 분). 2011.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gundy)을 다시 프랑스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후 “황금 관을 받을 만 하다”(deserve a coronet of gold; 3.3.89)며 그녀를 치켜 올린다. 그러나 찰스와 잔이 처음 대면했을 때에 “전하는 저 여자의 속치마까지 조사하고 있는 모양”(Doubtless he[Charles] shrives this woman to her smock; 1.2.119)이라며 냉소하던 앨런션이었다. 수정 대본에 삽입된 요크의 대사는 막다른 구석에 몰린 잔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요크: 너의 땀에 빠져 잉글랜드를 배신하고 프랑스에 붙은 비열한 버건디가 널  
우리 측에 팔아 넘겼다. 어찌나, 네가 구하려던 프랑스가 널 배신하고 널 버렸다.  
찰스도, 프랑스도, 네 아버지도, 신도 악마들도 모두 널 버렸다. (수정 대본 5.4.)

잔이 화형대로 끌려가 묶이고 있는 동안 찰스와 프랑스 귀족들이 협상을 위해 찾아오지만 그들이 ‘성 테니스를 대신하는 여자 예언자’라고 칭송하던 잔은 아예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 이 협상에서는 양국 간의 ‘전쟁’, ‘조약’, ‘화의’가 문제일 뿐, 한낱 양치기의 딸의 목숨은 중요치 않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대로 실행해도 괜찮겠느냐”(shall our condition stand?; 5.4.165)라는 위리크의 질문에 찰스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보류조항은 “우리[프랑스] 쪽이 이미 장악한 도읍들을 / 그쪽에서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면”(reserved you claim no interest / In any of our towns of garrison; 166-67)이라는 것뿐이다.

삽입된 화형 장면에서 잔은 마지막 항변의 기회를 얻는다. 프랑스의 목인 아래 잉글랜드의 분노의 희생양이 된 잔이 남기는 마지막 절규는 백년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사진 3. 영국군에게 넘겨져 화형에 처해지는 잔(민지영 분). 2011.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넘어선 더 큰 올림을 가진다.

잔: 이제 더없이 확실해졌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야욕에 물든 정치꾼 벌레  
들아! 처음부터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는 관심이 없던 너희들이 아니냐? ... 날 태  
워 그 불길 속에 너희들의 썩고 오염된 영혼을 정화시키거라! (수정 대본 5.4.)

〈헨리 6세 제1부〉의 결말은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1부』의 결으로 드러난 관심사  
인 국가의 질서 수호나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남자들의 세계에  
서 승승장구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잔 다르크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원작에서는 잔 다르크가 화형장으로 사라진 후, 헨리 6세와 마거릿 공주의  
혼사가 추진되어 극은 (결혼식 장면이 보여지지 않기에 문제적이지는 하지만, 명목상으  
로는) 평화와 결혼이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공연에서는 잔의 죽음  
이 극의 대단원에 보여짐으로써 비극적 분위기가 강조된다. 화형이 집행되는 동안 헨리와  
파당으로 갈라진 잉글랜드 귀족들, 모반을 계획하는 서포크와 양국의 화친의 매개물에  
불과한 마거릿이 퇴장하지 않은 채 무대 양쪽에 남아 있으면서, 잔을 희생시킨 후에도  
그녀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 4.

국가로서의 잉글랜드를 위해 수단화되는 잔 다르크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은 분명 그녀였다. 잉글랜드의 평화를 위하여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철저히 축출되어야만 했던 ‘마녀’ 잔을, 조국을 구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남성들의 세계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녀의 모습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한 시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또한, 글로스터 공작(Duke of Gloucester)과 윈체스터 주교(Bishop of Winchester), 요크와 서포크 백작(Earl of Suffolk) 간의 파괴적인 갈등을 자신이 평화롭게 해결했다고 믿는 순진하기만 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린 헨리 6세는 혼자 힘으로 조국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작품 전반부의 잔 다르크를 닮아 있다. 마거릿 역시 남성들 간의 권력 게임에 원치 않게 말려들어 이용됨으로써 잔 다르크의 일면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는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잉글랜드의 내분과 왕위계승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주어진 듯하다. 잔 다르크가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 〈헨리 6세 제1부〉 공연은 원작을 이끌고 나가는 큰 줄기인 잉글랜드 문제에는 별다른 손질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중심 플롯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여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장미 전쟁’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 첫 작품으로서 공연된 〈헨리 6세 제1부〉의 주인공이었던 잔 다르크가 사라진 이후에, 나머지 연작들에서 계속되는 잉글랜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가 관건이다.

## 참고문헌

- Shakespeare, William. *King Henry VI, Part 1*. Arden Shakespeare. Ed. Andrew S. Cairncross. London: Methuen, 1962.
- Hampton-Reeves, Stuart, and Carol Chillington Rutter. *The Henry VI Plays: Shakespeare in Performance*. Manchester: Manchester UP, 2006.
- Harrison, G. B. Introduction. *Henry the Sixth: Parts One to Three*. London: Penguin, 1959. 15-40.
- Holinshed, Raphael. *Holinshed's Chronicle: As Used in Shakespeare's Plays*. Ed. Allardyce and Joseph Nicoll. London: Dent, 1969.

